

2012.06.22 (금)

제311회 2차본회의

# 5 분 자 유 발 언

‘영농편익 증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예산 편성하라’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정 현 의 원

괴산이 지역구인 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19세기 까지 전국에 영농을 위해 저수지를 건설해 왔고, 1970년대 이후 대형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건설된 댐에 대한 안전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거동 분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나 중소형 댐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저수지 붕괴라는 막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류되었던 많은 양의 물이 댐의 파괴로 짧은 시간에 하류로 방류되면 하류지역에 심각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양의 토사와 돌 무더기들이 세굴, 운반, 퇴적되어 수로와 계곡의 지형 및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수리답은 총 43,218 ha에 이르고 이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68.9%인 29,738ha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농업용수 이용자도 7만 3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도내 농업용수이용자를 대표하는 이장, 쌀전업농, 용수관리위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용수관리 및 시설관리 만족도’가 7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용·배수로 정비 및 수초제거 등에 대해서는 71%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답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검과 관리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와 함께 청원군에 위치한 저수지(소류지) 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 이상 개보수와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앞서도 본 의원이 언급하였지만 소규모 저수지(소류지)는 영농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2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서도 계상되지 않아 농촌 지역 출신인 우리 의원들의 마음은 허탈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기후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5~6월에 적정량의 비가 내리지 않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곳곳의 논바닥은 이미 갈라진지 오래고, 들판의 초목들까지 시들거나 아예 말라 죽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가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향후 가뭄대비 농업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지사님께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